

이통사 '안심번호' 택배기사 요금폭탄 속얇이

'050' 가상번호 서비스...연락처 공개 꺼리는 이용자 급증 부가서비스 포함돼 대리기사 등 매월 통화료 추가 부담

KT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택배기사 문씨(여·30)씨는 최근 요금명세서 받고 깜짝 놀랐다. 전체 요금 12만원 중 5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청구된 것이다.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던 문씨는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안심번호(050)'로 건 전화가 많아서 요금이 추가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문씨는 "유·무선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재차 따졌지만 "안심번호가 부가서비스에 포함된다"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문씨는 "음성통화가 무료라는 말을 듣고,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속은 것 같다"며 "최근 90%가 넘는 택배들이 안

심번호로 배송되는데 생계 때문에 '050' 번호로 전화를 거는 우리 같은 택배기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통화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안심번호' 이용자들이 늘면서 생계 때문에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택배, 콜택시, 대리운전 등 종사자들이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무제한 요금제 가입 과정에서 '안심번호'가 부가서비스 통화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와 택배 종사자들에 따르면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3사

가 내놓은 무제한 통화혜택을 받을 수 없다. '050' 번호가 통화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부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안심번호란 본인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만든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 번호로, 통신사에 따라 월 1000~2000원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KT는 월정액 5만원 이상은 200분의 부가통화를 제공하고, SKT와 LGU+는 각각 300분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제공 통화량을 넘기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90% 이상의 전화를 안심번호로 하는 택배 종사자들에게는 무제한 통화 혜택이 크게 의미가 없다. 최근 홈쇼핑 등 대부분의 쇼핑물에서 구매자(소비자)에게 물건을 발송할 때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안심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등장한 카카오택시도 승객의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제공하는 등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동통신 3사는 월정액 3000원을 내면 매달 300분의 050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이용자가 적다. 특히 하루 적게는 200통에서 많게는 300통의 전화를 거는 택배 종사자에게는 추가 300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 이모(24)씨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때 안심번호가 부가통화라고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더구나 최근에는 안심번호가 아닌 실제 자신의 번호로 오는 택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300분의 추가 시간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승진 기쁨 나누고 소외이웃 돕고... 광주시는 올 상반기 인사 승진·전보자료부터 축하 화분을 기부받아 11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시민에게 나눠주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 나눔 행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화분을 무료로 가져가는 대신 이웃돕기성금으로 1만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재능기부센터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부금은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40 | 일출 08:57 일몰 20:09

“살살해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3/3	보성	맑음	-5/3
목포	맑음	-2/3	순천	맑음	-2/5
여수	맑음	-1/5	영광	맑음	-4/2
나주	맑음	-5/3	진도	맑음	-1/7
완도	맑음	-1/4	전주	맑음	-5/2
구례	맑음	-6/4	군산	맑음	-5/1
강진	맑음	-3/3	남원	맑음	-5/2
해남	맑음	-4/4	축산도	맑음	1/3
장성	맑음	-5/2			

	오전	오후
서해	파고(m) 1.0~2.0	파고(m) 1.0~2.0
남부	파고(m) 1.5~3.0	파고(m) 1.5~3.0
남해	파고(m) 0.5~2.0	파고(m) 0.5~2.0
서부	파고(m) 1.5~2.5	파고(m) 1.5~2.5
서부	파고(m) 1.5~3.0	파고(m) 1.5~3.0

목포	밀물	썰물
	03:22	08:41
	16:03	21:16
여수	밀물	썰물
	10:48	04:10
	22:54	16:51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	☀	☀	☀	☀	☀	☀
-3/3	-2/5	-3/3	-4/4	-3/3	-3/3	-3/3

생활지수: 관심 (계감온도), 낮음 (동파), 높음 (뇌졸중)

“화재 피해주민 구호물품 드립니다”

광주소방본부 지원센터 운영

광주시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기호)는 아파트 등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복구와 생활필수품 지원 등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 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혼자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보험 처리, 관공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화재증명원 발급,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불에 탄 화재처리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한다. 쌀과 식기세트, 침구류, 활동복 등 생필품도 긴급구호물품으로 지원한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피해 주택 폐기물을 처리하고 도배와 장판 교체, 안전점검 등도 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발생한 주택과 아파트 화재 피해주민에게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에 이재민 구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는 주택 화재 333건 중 저소득층 주택에서 발생한 31건에 대해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소외계층 1851구에 대해 1700만원을 들여 주택화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취약 어르신 무료 점심 배달’ 시는 주 5회·군은 주 1회

지자체 형편따라 들쭉날쭉... 전남도, 예산 85억 편성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배달해주는 혜택이 전남 일선 시·군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1289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배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마다 점심

배달 일수(횟수)가 달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포, 순천, 나주, 광양, 곡성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배달해주고 있다.

반면 구례, 장성, 신안, 고흥, 해남은 1주일에 한 차례 점심만 제공하고 있다. 강진,

함평, 무안, 영암 등은 1주일 2~3차례 점심이 배달된다.

경로당 무료급식 횟수도 시군마다 들쭉날쭉하다.

목포, 여수, 순천 등의 경로당은 주 5회 점심을 제공하는 데 반해 신안, 장흥 경로당은 주 1회가량 점심을 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재정적 차이와 무료 점심 배달 혜택을 보는 노인 숫자가 달라 점심 배달 횟수가 다르다”며

“경로당 무료급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무료점심배달 사업에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많은 노인이 매주 점심 배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경로당 무료급식과 무료점심배달 사업과 관련해 식사단가를 지난해 3000원에서 올해 3500원으로 올려 올해 관련 예산은 85억원에 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란 선동’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로 또 징역 1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선거 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연합뉴스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 KTX 5분거리
- ▶ 광주시청 10분거리
-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 무안공항 원할
-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